



Xistory stands for extra intensive story for an entrance examination for a university.
수능 기출 문제은행

2024 수능 대비

Xi story

윤리와 사상

- ▲ 최신 7개년 수능, 모평, 학평 기출문제 수록
- ▲ 쉽고 자세한 개념 정리+깨알 개념 체크 문제
- ▲ 1등급, 2등급 킬러 문제 특강+단계별 해설
-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공
- ▲ 문제 분석, 선택지 분석, 주의, 함정, 꿀팁, 입체 첨삭 해설
- ▲ 단원별 핵심 문제+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 ▲ [특별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1등급·2등급

킬러 문항 집중 학습



이수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2022년 입학
대구 송현여고 졸

Xi story Honors



“공자의 죽음관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졌다면 불교, 도교, 플라톤의 죽음관까지 정리해보며 복습하자!”

■ 단순 암기보다는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자!

흔히 윤리와 사상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암기하기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험생들이 윤리와 사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을 다루는 윤리와 사상 과목을 공부할 때는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그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며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 역시 기존의 고착화된 유형에서 벗어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영역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좋은’과 ‘행복’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2022 수능 9번 문제입니다. 이렇듯 정확한 정의를 동반한 탄탄한 개념 이해 없이 주요 출제 내용을 암기하는 식으로만 공부한다면 시험장에서 낯선 유형의 문제를 만나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 하나의 기출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자!

특정 사상가의 주장이 담긴 제시문을 읽고 그의 이론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리와 사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n회독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양의 기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상가의 관점으로까지 사고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자의 죽음관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졌다면 불교의 윤회설, 사제절에 비유한 도교의 죽음관, 더 나아가 죽음 후에 진정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플라톤과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신과의 합일을 중시한 중세 신철학자들의 사상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며 복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념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출문제에서 발견할 때가 많았는데, 이를 노트에 메모해 두고 시험 직전에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고난도 함정 문제들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자!

윤리와 사상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흔히 산파술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대해 한 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는 사상가들의 이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의 공부법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끊임없는 질문으로 상대방이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지 깨닫게 했듯, 하나의 주제나 사상가를 정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파고들어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했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내신 시험의 서술형 문제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 아웃라이어에 속지 말자!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 성적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헛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랬기에 다음 시험도 망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학습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운이 따라서 노력에 비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는 자만하며 공부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켜 보면 그런 기억들은 모두 평균치에서 벗어난 아웃라이어에 불과했고, 저의 실력은 결국 노력에 비례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불안하다면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한 노력은 언젠가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0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20, B 01~08		월	일	월	일
2	C 01~31		월	일	월	일
3	D 01~41		월	일	월	일
4	E 01~30		월	일	월	일
5	31~59		월	일	월	일
6	60~92		월	일	월	일
7	F 01~31		월	일	월	일
8	G 01~32		월	일	월	일
9	H 01~28		월	일	월	일
10	29~60		월	일	월	일
11	I 01~28		월	일	월	일
12	29~41, J 01~14		월	일	월	일
13	K 01~28		월	일	월	일
14	29~49		월	일	월	일
15	L 01~36		월	일	월	일
16	M 01~32		월	일	월	일
17	N 01~28		월	일	월	일
18	29~54		월	일	월	일
19	O 01~35		월	일	월	일
20	36~73		월	일	월	일
21	P 01~28		월	일	월	일
22	29~55		월	일	월	일
23	Q 01~18, R 01~11		월	일	월	일
24	S 01~28		월	일	월	일
25	T 01~43		월	일	월	일
26	U 01~44		월	일	월	일
27	V 01~27		월	일	월	일
28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차 례

I 인간과 윤리 사상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12
1 인간의 특성	
2 인간의 본성론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개알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B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22
1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2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개알 개념 체크	2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
C 공자 · 맹자 · 순자의 윤리 [2등급 킬러]	26
개알 개념 체크	28
2등급 킬러 문제 특강	2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
2등급 킬러 문제	36
D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킬러]	38
개알 개념 체크	40
1등급 킬러 문제 특강	4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42
1등급 킬러 문제	51
E 도덕적 심성 [1등급 킬러]	53
개알 개념 체크	55
1등급 킬러 문제 특강	5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7
1등급 킬러 문제	77
F 자비의 윤리	81
1 불교의 근본 교리	
2 부파(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	
3 교종과 선종	
개알 개념 체크	8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4
G 분쟁과 화합의 윤리	92
개알 개념 체크	9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94

H 무위자연의 윤리	102
개알 개념 체크	10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5

I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120
개알 개념 체크	12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3
동아리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홍차 동아리	134

III 서양 윤리 사상

J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36
개알 개념 체크	13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39
K 덕 있는 삶 [2등급 킬러]	143
개알 개념 체크	145
2등급 킬러 문제 특강	14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47
2등급 킬러 문제	157
L 행복 추구의 방법	160
1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2 스토아학파의 사상	
개알 개념 체크	16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63
M 신앙과 윤리	173
개알 개념 체크	17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6
N 도덕의 기초 [2등급 킬러]	184
개알 개념 체크	18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87
2등급 킬러 문제	198
O 옳고 그름의 기준 [1등급 킬러]	201
1 의무론	
2 공리주의	
개알 개념 체크	203
1등급 킬러 문제 특강	20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05
1등급 킬러 문제	222

P 현대의 윤리적 삶	224
1 실존주의	
2 실용주의	
깨알 개념 체크	22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7

IV 사회사상

Q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242
깨알 개념 체크	24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5

R 국가의 윤리	250
1 국가의 기원과 본질	
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깨알 개념 체크	25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3

S 시민의 윤리 [2등급 킬러]	257
깨알 개념 체크	25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0
2등급 킬러 문제	267

T 민주주의 [2등급 킬러]	268
1 민주주의	
2 시민 불복종	
깨알 개념 체크	27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71
2등급 킬러 문제	282

U 자본주의	284
1 자본주의	
2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도	
깨알 개념 체크	28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7

V 평화의 윤리	298
1 동서양의 평화사상	
2 세계 시민주의와 해외원조	
깨알 개념 체크	30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1
동아리 소개/중앙대학교 텃밭 동아리	308

새교육과정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2 실시 3월 학력평가	310
02회 2022 실시 4월 학력평가	314
03회 2022 대비 6월 모의평가	318
04회 2023 대비 6월 모의평가	322
05회 2022 실시 7월 학력평가	326
06회 2022 대비 9월 모의평가	330
07회 2023 대비 9월 모의평가	334
08회 2022 실시 10월 학력평가	338
09회 2022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42
10회 2023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46

빠른 정답 찾기 350

QR코드 수록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단계별 난이도 기출 문제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출제 경향 분석: 2023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3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심화 및 보충 자료: 용어 및 확장 개념 등을 보충 설명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A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

★ 2023 수능 출제 분석

출제 비중이 낮은 주제이지만, 2022 대비 6월 모평에서 명자와 순자의 인간 본성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주로 인간의 본성론 가운데에서도 성악설(순자), 성선설(맹자), 상무선악설(고자)의 내용과 순자·맹자·고자 중 두 사상가의 입장을 알아두자.

대비년도	출제
2023 수능	
2023 9월	
2023 6월	
2022 수능	

1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며 살아감
-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함

*** 인간의 특성**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꼭 외워!

윤리 사상

- 순자: 인(仁)을 함에서 먼저, 도(道)를 의지함
- 맹자: 지(智)를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 고자: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2 개념 개념 체크 문제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개념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개념 개념 체크

특성

2면 O, 틀리면 X에 표기하십시오.

1인간과 더불어 집단을 형성해 삶을 영위 (O, X)

2소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추 (O, X)

3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초월자에게 귀의 (O, X)

4신적 능력을 통해 윤리적 질서를 구현 (O, X)

5체제 도구를 창조하여 선천적인 육체의 (O, X)

6식적 사고와 자발적 동기로 올바른 삶 (O, X)

7상적인 상징체계를 활용하여 심미적 유 (O, X)

8능에 따라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 (O, X)

9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O, X)

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

출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2 인간의 본성론

03 갑, 을, 병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십시오.

[갑: 고자, 을: 맹자, 병: 순자]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을: 지(智)를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1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A / B / C)

2 인간은 본성이 악하며, 악함이 선행점은 후천적 인위 때문이다. (A / B / C)

3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양을을 지니고 있다. (A / B / C)

4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A / B / C)

5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이다. (A / B / C)

6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다. (A / B / C)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난이도: *** - 상, *** - 중, *** - 하
 - 출처표시: 수능·평가원: 대비연도, 교육청: 실시연도
- 예) 2022/수능 20: 2021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 2022(6월)/평가원 20: 2021년 6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 2021(3월)/교육청 20: 2021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2 실시 3월 학평 20: 2022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3 대비 9월 모평 20: 2022년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1 인간의 특성

A01 *** 고2 2019(6월)/교육청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동양 사상가는 매일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일을 했는가? 벗과 사귀어 있어 믿음을 주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겼는가?'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A03 ***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

어느 옛 성현은 매일 다음과 같은 문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일을 할가? 친구들과 사귀어 있어 믿음을 받을까? 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라는 리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향

4 1등급, 2등급 킬러 문제 특강

킬러 문제의 유형, 문제를 푸는 핵심 KEY,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 특강

1등급 킬러 문제 특강

이 유형은 제시문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후, (보기)의 1~6의 문장들에 각 사상가들이 어떻게 입장을 나타내는지 파악하여 A~C의 영역에 부합하는 적절한 문장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2022(6월)/평가원 20

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을: 지(智)를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1 갑의 입장은, 을의 입장을 정한다.

2 갑은 본래의 성(性)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고, 을은 후천적인 인위(人爲)를 강조한다.

3 갑은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을은 지(智)를 먼저 함에서 먼저 함을 강조한다.

4 갑은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을은 지(智)를 먼저 함에서 먼저 함을 강조한다.

5 갑은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을은 지(智)를 먼저 함에서 먼저 함을 강조한다.

6 갑은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을은 지(智)를 먼저 함에서 먼저 함을 강조한다.

2 인간의 본성론

03 갑, 을, 병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십시오.

[갑: 고자, 을: 맹자, 병: 순자]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을: 지(智)를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병: 인(仁)을 함에서 먼저, 의(義)를 함에서 먼저

1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A / B / C)

2 인간은 본성이 악하며, 악함이 선행점은 후천적 인위 때문이다. (A / B / C)

3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양을을 지니고 있다. (A / B / C)

4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A / B / C)

5 인간은 본래 도덕성을 지닌 존재이다. (A / B / C)

6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식욕과 성욕뿐이다. (A / B / C)

5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수록

실전 대비를 위해 실제 모의고사 원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2022년 시행 7회: 전문형
- 2021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1회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2022년 3월 4일 ~ 4일

I. 그림의 장면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갑: 이 삶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찾고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므로 고통이 두려움이 없다. 같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교환한다. 노동 외의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을 위해 활용한다.
 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노동자는 분업화된 노동의 연속에서 벗어난다. ...

7 [별책 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1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16개 선정

2 문제 풀이 꿀팁

3 개념 확인 문제

6 1등급 · 2등급 킬러 문제와 특별 해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킬러, 2등급 킬러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 1등급 킬러: 정답률이 50% 내외의 1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 ★ 2등급 킬러: 정답률이 50~60% 내외의 1, 2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1등급 킬러 문제

[E79~E80]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이(理)의 본연의 본체(體)는 감정이나 의지(意志)도 없고 초월도 없다. 이의 지극의 신표현 작용(作用)은 발(發)하여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 이(理)를 이(理)를 주장함.
 을: 이는 유행하고 기(氣)는 유행하므로 이는 유행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하고 기는 유위(有爲)하므로 국한된다.

2등급 킬러 문제

C26 ○ 2등급 킬러 2018/6월/평가원 6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높아지지 않고, 비록 공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것(性)에 의지하여 그의 마음(心)에 부끄러움을 두지 않는다.
 을: 사람에게 승과 패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지 되며, 승과 패가 있으면 노(怒)를 높이지 된다. 감정에 맡기는 일을 할 아 능하지 않고, 최고 대되는 일을 할 수 있다.

8 입체 탐사 해설!

문제+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출제 개념

문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자료 분석

문제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오답 탐사 해설

정답이 아닌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정답 탐사 해설

정확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수능 해강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풀이 Tip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줍니다.

정답률

교육청 자료, 기타 기관 공시 자료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시됩니다.

출처

출처된 기관과 시기를 알려줍니다.

주의

적절한 주의를 주어서 올바른 풀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정

함정을 체크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선택지 분석

선택지별로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

수험장 생생 체험

선배들이 수험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풀이 비법을 알려줍니다.

꿀팁

꼭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E 04 정답 ③

* 이항과 이이의 입장

[정답률 84%] 2021(9월)/평가원 11

한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理)와 기(氣)는 본래 서로 결합하여 형체가 되고 서로의 기 능이 조화되어 작용하게 된다. 진실로 이가 없는 것이 없고, 기가 없는 이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말한 바가 다르니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이(理)와 기(氣)는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라는 측면을 강조함.
 을: 이의 근원은 하나일 뿐이고,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다. 기가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사물이 되고, 이 또한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원리가 된다. 그러나 기는 이를 떠나지 않고, 이는 기를 떠이므로 기를 떠나지 않는다. ... 이(理)와 기(氣)는 유행하고 기는 국한된다.

① 갑은 자연을 도덕 감정으로, 철학을 일반 감정으로 본다.
 → 이항은 순자연적인 사물을 도덕 감정으로, 비록 호를 가능성에 있는 철학을 일반 감정으로 본다.
 ② 갑은 사람은 이가, 철학은 기가 주도하여 발전된 것이라고 본다.
 → 이항은 도덕 감정이 사단은 이의 발현으로, 일반 감정이 철학은 기의 발현으로 본다.
 ③ 을은 본래부터 사단은 선, 철학은 악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유행의 선한 측면으로, 철학은 악으로 본다.
 ④ 을은 사단은 철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 이이는 사단은 유행의 선한 측면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철학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는 것이라고 본다.

V 24 정답 ④

* 세계 시민주의 사상의 특징

[정답률 94%] 2021/수능 30

그림의 장면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계 시민은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지구의 모든 사람과 같은 우리의 이웃이다. 이 모든 것이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 세계 시민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①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②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③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④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주장한다.
 ⑤ 어떠한 편견도 타인을 혐오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②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③ 세계 시민주의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④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주장한다.
 ⑤ 어떠한 편견도 타인을 혐오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강민겸 서울 신반포중 교사
이현우 서울 신림고 교사
정상조 서울 번동중 교사

정선우 인천 대인고 교사
조승연 서울 장충중 교사
한혜정 경기 고촌고 교사

중요·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조회정**



[감수진]

강대성 서울 대입정보학원
김기경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
김순선 서울 중산고등학교
김지영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김하영 서울 메가스터디 학원
김학훈 울산 울산옥동 위너입시 학원
김효정 부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노승월 서울 POLLO사탐연구소
박성욱 부산 개성고등학교
박시연 서울 명지고등학교
박진경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성지윤 창원 제일여자고등학교
신영철 부산 대동학원
심정훈 대구 송원학원
양현철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오재성 화성 비봉고등학교

유태진 구리 구리여자고등학교
윤병택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이계호 광주 문성고등학교
이광호 서울 강일고등학교
이기정 광주 광주송일고등학교
이동규 서울 선정고등학교
이동혁 파주 한민고등학교
이수진 안성 안성여자고등학교
이숙영 인천 제일고등학교
이원종 울산 이원종 사탐 학원
이지하 광주 광주석산고등학교
이향복 대전 제일학원
임은영 서울 청산미래와사람들
장상열 일산 필사탐 학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영환 남양주 진건고등학교

장춘규 서울 강동고등학교
장한빈 군산 한들고
전고은 서울 명지고등학교
정채영 청주 청주여자고등학교
주미림 강원 속초여고
주철호 대구 지성 학원
차태호 청주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최승규 부산 정관고등학교
최종익 청주 청주여자고등학교
허용 용인 고림고등학교
현용환 서울 한영고등학교
황순중 천안 천안여자고등학교
황아름 안산 경안고등학교
황영미 대구 멘토사회
황혜란 광주 서강고등학교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킬러 단원

★ 2023 수능 출제 분석

-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로, 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였다. 난이도는 예년과 다르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대비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3 수능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
2023 9월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
2023 6월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
2022 수능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

1. 주희의 성리학

(1) 이기론과 심성론

이기론	•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임 •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 → 사물에서 별개로 떨어져 있을 수 없음 •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 원리로서의 이와 재료로서의 기는 의미와 역할이 다름 → 서로 뒤섞일 수 없음
심성론	• 성즉리(性卽理): 인간의 본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이며 성에는 인의예지(사덕)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성(性)의 구분: 본연지성^①, 기질지성^② • 심통성정(心統性情):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주재하여 통괄함

(2) 수양론

- ① 거경궁리(居敬窮理): 경(敬)^③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
- ②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함
- ③ 존양성찰(存養省察):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며 반성하고 살핌
- ④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함

2. 왕수인의 양명학

심즉리설(心卽理)	•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理]임 •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음 → 심외무물(心外無物) 심외무리(心外無理)
치양지설(致良知)	• 사람은 누구나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양지를^④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음 •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致良知]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
지행합일(知行合一)	• 앎[知]은 행함[行]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임 •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임

3. 격물치지(格物致知)에^⑤ 대한 입장 비교

성리학	• 사물에 나아가 모든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함 <table border="1"> <tr> <td>격물</td><td>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td></tr> <tr> <td>치지</td><td>지식을 추구하여 얻는 것</td></tr> </table> • 이치는 모든 사물 속에 내재하며, 내 마음 속에도 존재함 → 사물에 대한 탐구는 마음의 이치와 관통해야 함 • 도덕적 실천과 함께 지식의 확충을 강조함	격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	치지	지식을 추구하여 얻는 것
격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				
치지	지식을 추구하여 얻는 것				
양명학	• 모든 이치는 마음 안에 있으니 양지를 극진하게 발휘하여 마음의 일을 바로잡음 <table border="1"> <tr> <td>격물</td><td>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td></tr> <tr> <td>치지</td><td>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td></tr> </table> • 이치는 마음 안에 있으므로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고 실천해야 함 • 내면의 순수한 도덕성 발휘를 강조함	격물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	치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
격물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				
치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실현하는 것				

출제 2023 대비 수능 18번
2023 대비 9월 모평 2번
2023 대비 6월 모평 3번

★ 6월, 9월 모평 모두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다.

① 본연지성(本然之性)

하늘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

② 기질지성(氣質之性)

이와 기의 결합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에서 변화하는 기질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실적 본성(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

③ 경(敬)의 실천 방법

주일무적	마음을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함
정제엄숙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함
상성성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함

④ 왕수인의 양지(良知)

- 마음의 본체이며 하늘의 이치
-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

⑤ 성리학과 양명학의 격물치지 해석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로 표기하시오.

- ① 주희는 인간만이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
- ② 주희는 도덕적 행위[行]는 이치를 탐구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 ×)
- ③ 주희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正] 격물(格物)을 통해 앎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 ×)
- ④ 왕수인은 도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 ×)
- ⑤ 주희는 왕수인과는 달리 인간은 누구나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
- ⑥ 왕수인은 마음[心]이 없이는 어떠한 이치[理]도 없다고 보았다. (○, ×)
- ⑦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도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의 일치가 도덕적 삶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 ×)
- ⑧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여 본성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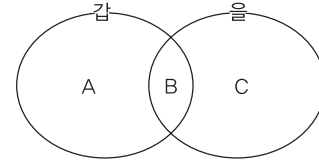
- ① ()은/는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앎이 극진해진다고 보았다.
- ② ()의 격물치지는 사욕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 ③ ()은/는 ()에게 사물의 이치가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 ④ ()은/는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은/는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라고 본다.

[보기]

주희 왕수인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시오.

[갑: 왕수인 을: 주희]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인간은 누구든지 성인(聖人)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A / B / C)
- ② 인간의 마음[心]이 없이는 어떠한 이치[理]도 없다. (A / B / C)
-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격물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A / B / C)
- ④ 참된 앎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 (A / B / C)
- ⑤ 만물에 부여된 형이상의 본성에도 인의예지가 갖추어져 있다. (A / B / C)
- ⑥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A / B / C)
- ⑦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A / B / C)
- ⑧ 양지는 군자나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A / B / C)
- ⑨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A / B / C)
- ⑩ 도덕적 행위는 먼저 도덕적 지식을 확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A / B / C)
- ⑪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도달한다. (A / B / C)
- ⑫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통솔하고 있다[心統性情]고 보았다. (A / B / C)

정답

- 01** ① ×(인간과 사물 모두에 본연지성으로서의 이(理)가 내재한다고 봄) ② ○(주희의 격물치지) ③ ×(왕수인의 주장임) ④ ○(왕수인의 지행합일설) ⑤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점) ⑥ ○(왕수인은 심즉리를 주장함) ⑦ ○ ⑧ ○(주희와 왕수인 모두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토대로 한 유학자로, 존천리거인육을 강조함)
- 02** ① 주희 ② 왕수인 ③ 왕수인, 주희 ④ 주희 ⑤ 왕수인
- 03** ① B(유학의 공통적 입장) ② A(왕수인은 마음밖에는 이치도 사물도 없다고 봄) ③ B(왕수인과 주희 모두 격물치지를 강조하였으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음)

- ④ A(왕수인의 지행합일설) ⑤ C(주희는 만물에도 이치와 본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왕수인은 마음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봄) ⑥ C(주희의 거경궁리에 대한 설명임) ⑦ A(왕수인은 양지를 본성이자 마음의 본체로 봄) ⑧ B(양지는 맹자가 주장한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으로, 맹자를 계승한 주희와 왕수인 모두 긍정함) ⑨ A(왕수인의 지행합일설) ⑩ C(주희의 선지후행설) ⑪ C(주희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임) ⑫ C(주희의 심통성정에 대한 설명임)



D01

2021/수능 8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心]과 이치[理]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마음이요, 실제적인 것은 성(性)이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곧 깨닫고 느끼는 주체이다.

을: 마음의 본체[體]는 성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치가 있겠으며, 이치 바깥에 마음이 있겠는가?

[보기]

- ㄱ.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ㄴ. 성(性)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ㄷ.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
 ㄹ. 격물치지는 천리의 보존[存天理]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D02

2021(9월)/평가원 14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물에 응대하려면 먼저 궁리(窮理)해야 하지만, 궁리하려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며 밝고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미세함까지 살필 수 있으며 번잡하고 혼란한 것을 분석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을: 이치[理]는 오직 이 마음에서 찾을 뿐이다. 이 마음은 인욕이 없는 깨끗한 천리여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정성스러운 것이니, 겨울에는 자연히 부모의 추위를 생각하여 따뜻하게 해 드릴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보기]

- ㄱ. 갑: 심(心)은 성(性)이 발현된 정(情)을 포괄하지 못한다.
 ㄴ. 갑: 도덕적 실천[行]이 선행되어야 도덕적 앎[知]이 가능하다.
 ㄷ. 을: 마음이 드러난 뜻[意]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ㄹ. 갑, 을: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D03

2021(6월)/평가원 6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궁리(窮理)'란 무엇입니까? 1	궁리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네. 사람이 양지(良知)를 지니고 있지만 궁리하지 못함은 아는 데에는 모르는 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네. 2
그렇다면 궁리와 관련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무엇입니까? 3	㉠ 4

- 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것이네.
 ②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고요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네.
 ③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네.
 ④ 타고난 양심을 지켜 내고 본성을 함양하여 늘 성찰하는 것이네.
 ⑤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서 본래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네.

D04

2021(3월)/교육청 12

다음을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하늘[天]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낳을 때는 기운[氣]으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치[理] 역시 거기에 부여한다.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에는 각각 그 이치를 얻어서 다섯 덕목[五常之德]으로 삼으니, 이른바 본성[性]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 ① 사람에게서는 인의예지의 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②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본성이라 하는가?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하늘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가?
 ④ 이와 기는 사물에서는 분리되지 않지만 개념상 구분되는가?
 ⑤ 본연지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될 수 있는가?



1등급 킬러 문제

FOR THE FIRST CLASS LEVEL

03 DAY

D35 ★ 1등급 킬러 2023 대비 6월 모평 3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실천은 본래 하나입니다
[知行合一].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은 효도를 실천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갑과 실천은 언제나 서로가
의존합니다. 갑과 실천의 관계는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선후[先後]를 논할
때에는 앞이 실천보다 먼저입니다.



- ① 갑: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② 갑: 성인(聖人)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 ③ 을: 격물(格物)은 이치를 궁구하여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 ④ 을: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앎[知]이 실천[行]보다 중요하다.
- ⑤ 갑, 을: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D36 ★ 1등급 킬러 2020(6월)/평가원 12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식과 부모에게는 자식과 부모의 이치[理]가 있고, 신하와 군주에게는 신하와 군주의 이치가 있다.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효(孝)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충(忠)의 이치를 군주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 하나에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 ㄴ. B: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 ㄷ. B: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을 바로잡는다.
- ㄹ. C: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D37 ★ 1등급 킬러 2019(9월)/평가원 10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치지(致知)가 격물(格物)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理]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곧 나의 앎이 확연히 관통하게 되어 가림이나 막힘이 없게 된다.

을: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남이 곧 행동이다. 생각이 일어난 곳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

- ① 갑: 기질이 없이는 하늘이 준 본성이라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 ② 갑: 인간이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③ 을: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 따로 일[物]이 없다.
- ④ 을: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곧 치지격물(致知格物)이다.
- ⑤ 갑, 을: 어리석은 이는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도 성인(聖人)이 될 수 없다.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와 포도나무, 돌에게는 각각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 즉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理性)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고, 이성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 ①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 ②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 ③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념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 ④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힘쓴다.
- 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추구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세간(世間)에서의 생겨남[集]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에 없음은 있을 수 없고, 세간에서의 사라짐[滅]을 바르게 알고 본다면 세간에 있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양극단[二邊]을 떠난 중도(中道)이며 연기(緣起)의 진리이다.

< 보 기 >

- ㄱ.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ㄴ. 만물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ㄷ.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
 ㄹ.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야 무명(無明)에 이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람은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갖고 있다. 어려서 자신의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커서 자신의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을: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악(惡)한 본성을 갖고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아우가 형 대신 일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

- ① 갑: 대인과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② 갑: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③ 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인위적 노력(僞)을 통해 가능하다.
- ④ 을: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갑, 을: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예(禮)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이 섬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창고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므로 결핍의 두려움이 없다. 집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교환한다. 노동 외의 여가 시간은 자기 계발을 위해 활용한다. 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노동자는 분업화된 노동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생산물의 분배는 공동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나)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① 갑: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기에 사회 규범이 없습니다.
- ② 갑: 물질적 재화가 풍족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을: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소유합니다.
- ④ 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대하여 노동 소외가 사라집니다.
- ⑤ 갑, 을: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일한 만큼만 분배받습니다.

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이성(理性)은 의지를 지도할 때 감정에 맞설 수 없고 이성만으로는 의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을: 이성은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 ㄱ. A: 선악의 구별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ㄴ. B: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ㄷ. B: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의지와 결과 모두에 근거한다.
 ㄹ. C: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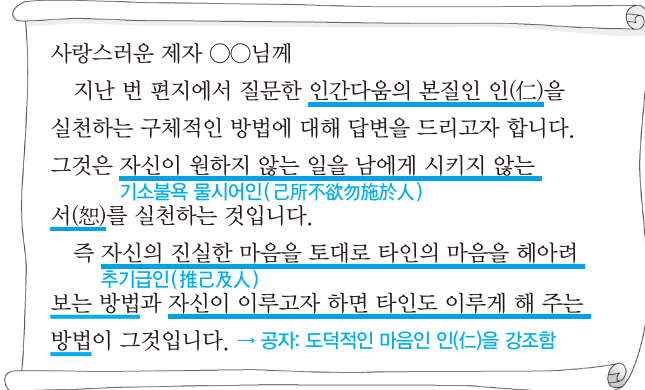
공자·맹자·순자의 윤리



01 정답 ⑤ * 공자의 사상

[정답률 93%] 2023 대비 수능 1

다음 가장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공자는 본성이 악하다고 보지 않음
-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장자의 입장
-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노자의 입장
- ④ 사성제(四聖謚)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석가모니의 입장
-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私欲)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

| 문제+자료 분석 |

- 고대 동양 사상가 공자: 도덕적인 마음인 인(仁)을 강조하며, 인의 실천 방법으로 충(忠), 서(恕), 기소불욕 물시어인, 추가급인, 극기복례 등을 주장함.

| 선택지 분석 |

- ① 공자는 인간 본성을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화해야 함 [化性起偽(화성기위)]을 주장하는 사상가는 순자이다.
- ②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만물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보는 제물 사상)을 주장하는 사상가는 장자이다.
- ③ 겸허와 부쟁,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노자이다.
- ④ 사성제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 ⑤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극기복례(克己復禮)이며, 이는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김예은 2023 수능 응시·부산 대내고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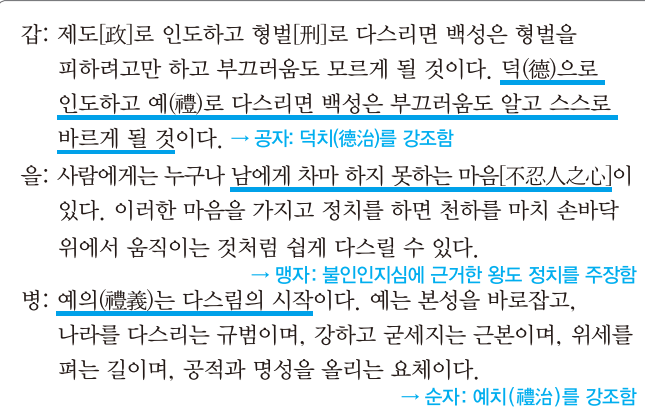
공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쉽게 출제됐어. 공자는 사람의 선한 본성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주장했다는 걸 기억하자!



02 정답 ③ *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정답률 86%] 2023 대비 9월 모평 7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중시해야 한다.
공자 형벌은 덕에 근거해야 함
- ② 을: 왕도 정치를 하려면 자직(社稷)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맹자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움
- ③ 병: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순자 화성기위(化性起偽)
- ④ 갑과 을: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려도 군주를 을(맹자)은 역성혁명을 인정함 교체할 수 없다.
- ⑤ 을과 병: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사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병(순자)은 본성이 악하다고 봄

| 문제+자료 분석 |

- 갑 공자: 백성을 도덕적으로 감화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덕(德)과 예(禮)가 올바르게 선 뒤에야 형벌과 제도를 활용해야 함.
- 을 맹자: 임금이 사단과 같은 타고난 선한 마음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 병 순자: 타고난 본성을 방치하면 쉽게 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의를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함.

| 선택지 분석 |

- ① 갑(공자)은 덕(德)을 갖춘 통치자가 인(仁)에 근거한 예(禮)를 올바르게 세운 후에야 비로소 형벌과 제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맹자)은 임금에 비해 사직이, 사직에 비해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사직(社稷)에서 사(社)란 토지의 신을, 직(稷)이란 곡식의 신을 뜻한다.
- ③ 병(순자)은 인간이 자기 이익과 욕구를 우선하는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다. 이러한 본성을 방치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의로써 이를 교화해야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
- ④ 갑(공자)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며 임금이 임금다워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임금답지 않은 임금을 교체하자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을(맹자)은 인의를 저버린 군주는 군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 ⑤ 을(맹자)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달리 병(순자)은 백성이 악한 본성을 타고나므로 예의를 통해 이를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21(3월)/교육청 15

(가)

갑: 도(道)란 큰길과 같다. 어찌 알아보기 어렵겠는가? 대장부는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도를 행한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 맹자

을: 도는 고금(古今)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다. 이 도는 하늘의 도가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닌 인간의 도이다. 인간의 본성[性]은 악하나 도를 받들어 선을 쌓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 순자

병: 도는 실재하고 진실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형체도 없다 [無爲無形]. 도는 스스로가 근본이 되고 하늘과 땅을 생성하였으며 개미, 폭정이, 기왓장 등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 → 장자

- ① A: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택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X)
→ 순자(을)는 본성에 인위를 더함으로써 본성을 선택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봄
- ② B: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X)
→ 순자(을)는 누구나 도덕적 실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봄
- ③ C, E: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X)
→ 장자(병)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봄
- ④ D, F: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X)
→ 순자(을)는 도덕과 통치의 원리를 하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봄
- ⑤ E: 인의의 규범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것임을 간과한다. (O)
→ 장자(병)는 인위적인 규범이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친다고 봄

★ 제시문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A~F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하는지 확인하면서, 비판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갑은 성선설을 주장하며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성이 선하다고 본 맹자이며, 을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본 순자이다. 병은 도(道)를 천지万물의 근본으로 본 장자이다. 장자의 입장에서 맹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 KEY이다.

출제 개념: 맹자, 순자, 장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1. 갑은 맹자다.

- 제시문의 '대장부',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등의 표현을 통해 맹자임을 알 수 있다.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 인의와 같은 덕을 중시하는 것,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보는 것 등을 주장한다.

2. 을은 순자다.

- 제시문의 '도는 인간의 도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나' 등의 표현을 통해 순자임을 알 수 있다.
-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 하늘과 인간의 일을 분리하는 것 등을 주장한다.

3. 병은 장자다.

- 제시문의 '도가 스스로가 근본이 되고',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장자임을 알 수 있다.
- 장자는 인위적인 덕들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친다는 것, 시비선악의 분별은 상대적이라는 것 등을 주장한다.

step 2 (나)를 보면서 A~F의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1.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한다.

- 비판하는 사상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판받는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 비판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 A~F의 비판 내용과 방향이 각 사상가들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선택지 분석 |

① A: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택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X)

- 맹자(갑)는 인위를 더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므로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택될 수 없다는' 내용의 비판을 다른 사상가에게 할 수는 없다.
- 한편 순자(을)는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선택하게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므로, '인위를 더하지 않으면 본성은 선택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내용의 비판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B: 도덕적 실천 능력을 누구나 지닌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X)

- 맹자(갑)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능히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양능(良能)과 능히 도덕적으로 올바름을 인식할 수 있는 양지(良知)를 타고난다. 따라서 수양을 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 또한 순자(을)에 따르면 누구나 도덕적 실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인식 능력과 실천 능력을 타고난다. 따라서 예(禮)를 통해 욕구를 조절하고 인위를 일으켜 본성을 교화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③ C, E: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임을 간과한다. (X)

- 장자(병)는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미추, 선악 등의 분별은 상대적이라고 본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도뿐이다. 따라서 장자(병)가 '시비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비판을 다른 사상가에게 할 수는 없다.

④ D, F: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X)

- 맹자(갑)에 따르면 도덕과 통치의 원리는 하늘에 근거해야 한다. 맹자(갑)는 천명(天命)을 본성이라 보고, 그러한 본성을 따르는 길을 바랍적하다고 본다.
- 반면 순자(을)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구분된다는 천인분리(天人分二)를 주장한다. 하늘의 일은 인위가 없어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는 반면, 인간의 일은 만물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늘은 도덕과 통치 원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⑤ E: 인의의 규범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것임을 간과한다. (O)

- 맹자(갑)는 인의의 규범을 바탕으로 본성을 기르고 보존할 것을 강조한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 반면 장자(병)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은 인간의 소박한 본성을 해친다고 본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인의와 시비 같은 규범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은 상대적인 구별에 따르게 되면 특정한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본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 정답은 ⑤이다.

* 맹자, 순자, 장자의 입장 비교 ★ 2등급 핵심 개념

맹자	• 도덕의 근원으로서 하늘 • 사단의 확충, 집의와 양호연지기, 과욕	•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해야 함
순자	• 천인분리 사상 • 성왕이 제정한 예를 통해 인위를 일으킬 것	• 인위를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함
장자	• 인위를 거부하고 타고난 본성 회복해야 함	• 좌망, 심재

1회 01 정답 ① *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 [정답률 60%]

| 선택지 분석 |

L 02 해설 참조

- ① 스토아학파는 신(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스토아학파는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은 현대 실존주의 사상에 해당한다.
- ③ 스토아학파는 불안정한 정념이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정념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욕망과 공포, 쾌락, 슬픔 등과 같은 비자연적인 정념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정념에 대해서도 초연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스토아학파는 쾌락이 아니라 금욕을 추구하였다.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보고 고통의 제거를 강조한 것은 에피쿠로스학파이다.
- ⑤ 스토아학파는 신, 자연, 이성의 필연적인 법칙에 순응할 때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추구한 것은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에 해당한다.

1회 02 정답 ④ * 석가모니의 사상 [정답률 71%]

| 보기 분석 |

F 18 해설 참조

- ㉠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 따라서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삼법인의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 개고이다.
- ㉡ 석가모니는 만물의 실상, 즉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 석가모니의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즉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
- ㉣ 석가모니는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에 따라야 함을 설파한다. 그러나 그것이 무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니다. 무명이란 고통의 원인으로, 존재의 실상에 대해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1회 03 정답 ② * 맹자와 순자의 사상 [정답률 78%]

| 선택지 분석 |

C 18 해설 참조

- ① 갑(맹자)은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대인은 사단을 잘 보살피며 선한 마음을 보존하는 반면,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갑(맹자)은 무차별적이고 평등하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여 차등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의 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존비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분별적인 사랑을 주장하였다.
- ③ 을(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성인과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 ④ 을(순자)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왕이 제정한 예를 기준으로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갑(맹자)과 을(순자)을 포함한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배우고 익힐 것을 강조한다. 갑(맹자)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을 실현하기 위해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고 을(순자)은 이기적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를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1회 04 정답 ② * 모어와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 [정답률 68%]

| 선택지 분석 |

Q 16 해설 참조

- ① 갑(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사회 규범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 ② 갑(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이곳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지 않는다.
- ③ 을(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계급과 사유 재산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다.
- ④ 을(마르크스)은 만국의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은 현실에서 결코 연대할 수 없으며,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모든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갑(모어)과 을(마르크스)이 꿈꾼 이상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며, 생산과 분배에 있어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상태이다. 따라서 을(마르크스)은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생산했든,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분배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1회 05 정답 ① * 흄과 칸트의 사상 [정답률 66%]

| 보기 분석 |

Q 11 해설 참조

- ㉠ 갑(흄)은 다른 이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인의 감정을 지닐 수 있고, 개인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주관성을 넘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갑(흄)과 을(칸트)의 공통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갑(흄)은 이성이 감정이 명령하는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을(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근거는 선의지에 있으며, 그러한 선의지를 산출하는 것이 바로 실천 이성이다. 따라서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 두 입장 모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갑(흄)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행위의 도덕성의 근거가 된다. 반면, 을(칸트)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행위의 동기인 의지이다.
- ㉣ 을(칸트)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칸트)은 이성적 존재자, 즉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율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현상계에 속해 있기도 한 탓에 그 의지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기에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의무의 형태로 제시되지만 도덕 법칙은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수립한 것이기에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 가능하다.

1회 06 정답 ①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 [정답률 83%]

| 선택지 분석 |

J 03 해설 참조

- ① 소크라테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가진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며 이성을 통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 ②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을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며,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으므로 덕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성적 탐구의 대상을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본 것은 자연 철학자들의 주된 입장이다.
- ⑤ 소피스트들은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것을 진리라고 보았으며 이는 이후 실용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차 례 [중요 개념+개념 확인 문제]

★ 1등급 킬러

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1. 공자, 맹자, 순자 [2등급 킬러]	02
★ 02. 성리학과 양명학 [1등급 킬러]	06
★ 03. 이황, 이이, 정약옹 [1등급 킬러]	10
04.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16
05. 원효, 의천, 지눌	18
06.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	20

II 서양 윤리 사상

* 서양 사상의 계보 [1등급 킬러 특강]	22
07.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2등급 킬러]	24
08.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28
09.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	30
10. 합리론과 경험론 [2등급 킬러]	32
★ 11. 공리주의와 칸트 [1등급 킬러]	34
12.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38

III 사회사상

1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2등급 킬러]	40
14. 사회 계약론과 민주주의 [2등급 킬러]	42
15. 자본주의	44
16. 평화	46

* 개념 확인 문제 정답	48
---------------	----

★ 주자와 왕양명의 천리(天理)

성(性)은 곧 이(理)입니다.
성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理)여서 온전하게
선한 것이지요.



주자

마음[心]이 곧 이(理)입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효도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도의 이치도 없는 것입니다.



왕양명

★ 격물치지 (格物致知)에 대한 해석

	격 (格)	물 (物)	치 (致)	지 (知)
주자 (성리학)	도달하다, 이르다(至)	사물의 본성(본연지성)	지극한	앎
	→ 각 사물들이 지닌 이치를 / 탐구해야 / 앎이 / 지극해진다.			
	• 사물에 대한 공부를 강조: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탐구 → 거경궁리			
왕양명 (양명학)	바로잡다(正)	마음의 작용	실현하다, 발휘하다	양지
	→ 양지를 / 발휘하면 / 내 마음의 작용이 / 바로잡힌다.			
	• 사물에 대한 공부를 부정: 선천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론적 학습 과정이 불필요함			

★ 주자와 왕양명의 지(知)와 행(行)

주자 (성리학)	왕양명 (양명학)
지행병진(知行並進)	지행합일(知行合一)
• 지와 행은 병행한다. • 지는 행에 앞서고, 행은 지보다 중요하다.	• 지와 행은 하나이다. •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 도덕적 앎(知)은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하여야 한다.	

★ 문제 풀이

배우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인 '양지'와 '양능'은 선진 유학자인 맹자가 주장한 것이지만, 맹자를 계승한 유학자들도 사용해 온 말이야.

양지의 개념을 왕양명이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대체로 양지를 주자와 구별되는 왕양명만의 주장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양지와 양능은 모든 유학자들이 전제로 하는 내용이야.

주자와 왕양명 모두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양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잊지 말자.

05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O, X로 표시하십시오.

	맹자	주자	양명
(1) 인간은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2)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타고난 본래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양지가 내재되어 있다.			
(4) 도덕적 행위는 이치를 탐구해야만 가능하다.			
(5)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앎을 늘려가는 공부가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			
(7) 도덕적 앎[知]은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해야 한다.			

06 다음 내용을 주장했던 사상가를 각각 쓰시오.

	사상가 이름
(가) 양지(良知)는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지 본 후에 다시 마음먹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지와 행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포함한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양지를 실천하는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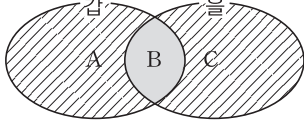
07 다음 <보기> 속 개념들을 주장한 사상가에 따라 분류하십시오.(두 사상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개념의 경우, 칸 각각에 모두 기재하십시오.)

[보기]

심외무리 지행합일 양지 존천리거인욕 이일분수 사덕 심외무물
지행병진 선지후행 본연지성 심통성정 거경궁리 기질지성

주자(성리학)	왕양명(양명학)
①	②

0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가)	갑: 이(理)와 기(氣)는 본래 먼저와 나중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지만, 굳이 그 내력을 따져 본다면 반드시 이가 먼저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따로 존재하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기가 없다면 이도 탈 곳이 없다. 세상에 이 없는 기는 존재하지 않고 기 없는 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가로써 형체가 만들어지면 이도 거기에 품부된다. 기는 쇠·나무·물·불이 되며, 이는 인·의·예·지가 된다. 을: 몸이 주재하는 것이 마음[心]이고, 마음이 발현한 것이 의(意)이며, 의의 본체는 지(知)이고, 의가 있는 곳이 물(物)이다. 만약 의가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사물을 사랑하는 데 있다면 인민애물(仁民愛物)이 곧 하나의 물이고, 의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데 있다면 시청언동(視聽言動)이 곧 하나의 물이다. 그러므로 마음 밖에 이(理)가 없고, 물(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 ㄱ. A: 사물에도 성(性)이 있고, 그 성이 그 사물의 이(理)이다.
- ㄴ. A: 마음이 곧 이치이며, 성과 정을 통괄하는 것도 마음이다.
- ㄷ. B: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예외 없이 천리가 내재되어 있다.
- ㄹ. B: 성인(聖人)에 이르려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한다.
- ㅁ. C: 마음을 벗어난 곳에서는 결코 천리를 구할 수 없다.
- ㅂ. C: 마음은 모든 일[萬事]의 근원으로, 이치는 마음에만 존재한다.

()